

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제목 | Cultures in Contact: From Mesopotamia to the Mediterranean in the Second Millennium B.C. |
| 발행언어 | 영어 |
| 발행처 | Metropolitan Museum of Art |
| 발행일 | 2013. 8. 13. |
| 저자 | Joan Aruz, Sarah Graff, Yelena Rakic |
| 출판국가 | 미국 |
| 페이지수 | 354 |
| ISBN 또는 ISSN | 978-0300185034 |

내용 요약

이 책은 2008년 9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(Metropolitan Museum of Art)에서 “바빌론 저편 : 기원전 2000년경의 예술, 무역 및 외교”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를 중심으로 중동 및 동부 지중해 세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요 국제 학자들이 참여하여 이들의 글 28편을 엮은 것으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까지 확장 된 풍부하고 복잡한 문명들 사이의 상호교류 및 물질문화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과 통찰력 있는 예술적 역사 해석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.

본문의 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 제 1장은 기원전 2000년 경 아모리족 (Amorite)의 고대 도시를 소재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의 관계, 아나톨리아와 코카서스 지역의 고고학적 탐사, 에게(Aegean) 연안과 근동 지역의 관계, 크리티와 이집트와 근동지역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. 제 2장은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, 제 3장은 고대 시리아 예술의 연속성과 청동기 시대의 코끼리 사냥 및 고대 왕좌 장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. 제 4장은 근동지역의 예술양식이 에게해의 벽화 예술에 미친 영향, 미노아 문명이 이집트와 동부 지중해의 레반트(Levant)에 미친 영향, 서 시리아의 최대의 청동기 유적인 콧나(Qatna)의 벽화와 에게-시리아 예술의 형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. 제 5장은 장신구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상호작용, 마지막으로 제 6장은 현존하는 바빌로니아의 기록자료, 히타이트 종교에 영향을 준 메소포타미아 등을 소개하고 있다.